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나눔테크(24488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주예령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테크(244880)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기술로 생명을 살리는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선도기업

기업정보(2026.07.16 기준)

대표자	최무진
설립일자	2005.08
상장일자	2016.06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주요제품	의료기기(저출력심장 충격기,엑스선골밀도 진단기 등) 제조

시세정보(2026.07.16 기준)

현재가(원)	1,729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86
발행주식수	5,020,000
52주 최고가(원)	2,450
52주 최저가(원)	1,50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최무진

■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시장을 선도하는 응급의료기기 전문기업

나눔테크(이하 동사)는 2005년 8월 설립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전문 제조기업으로, 2016년 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2008년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계, 시제품 제작,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일관 개발·제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조달시장에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34%, 2025년 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국 각지의 설치 실적을 바탕으로 선두 제조업체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등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4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성인·소아 공용패드를 비롯하여 패드상태 모니터링, 작동온도 알림, 현장상황 녹음,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상용화하여 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특허 10-2417949)을 적용한 저출력 자동심장충격기 ReHeart NT-381.AI가 2025년 3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업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40개국 수출망과 법제화 기반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보

동사 제품은 국내 공공기관, 금융·교육기관, 병원 등 전국 각지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유럽 CE, 일본 PMDA, 중국 NMPA, 대만 TFDA 등 해외 인증을 바탕으로 4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확대, 내구연한 규정에 따른 교체수요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수요 창출 등 정책적 수요 기반이 중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동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75.7	24.6	39.6	22.5	36.9	21.0	19.18	15.60	12.22	735	4,203	4.20	0.73
2024	161.2	-8.2	28.3	17.5	30.3	18.8	13.48	11.75	8.08	603	4,757	3.09	0.39
2025	163.5	1.4	33.4	20.4	32.6	19.9	12.90	11.26	8.63	649	5,306	3.70	0.45

기업경쟁력

국내 조달시장 선두의 AED 전문기업

- 2025년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조달시장 점유율 35% 기록, 선두 지위 확보
-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로 자동심장충격기 국산화 성공
- 설계·시제품 제작·인허가 전 과정 자체 수행 일관 개발체계 구축

정책 기반의 안정적 수요 구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및 과태료 규정 기반 공공 수요 확보
- 내구연한 10년 규정 도래에 따른 교체수요 본격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신규 수요 창출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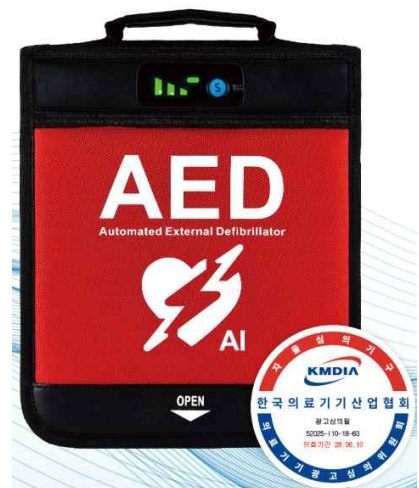
AI 심전도 분석 자동심장충격기

- 심층신경망 기반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특허 10-2417949)을 적용하여 전기충격 판정 정확도를 높인 조달청 우수제품 ReHeart NT-381.AI 상용화

IoT 원격관리 시스템

- 저전력 통신모뎀과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장비 자가진단 결과와 소모품 유효기간을 자동 관리하는 부가 서비스를 일반 등에 수출

<ReHeart NT-381.AI>



시장경쟁력

성장하는 국내 목표시장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국내 시장은 연평균 5.03% 성장하여 2029년 31,709.05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제세동기 시장 확대

- 글로벌 제세동기 시장은 2024년 127.3억 달러에서 연평균 7.5% 성장하여 2037년 325.9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높은 진입장벽 내 선두 지위

- 3등급 의료기기 인증과 축적된 레퍼런스가 요구되는 시장에서 국내 조달시장 점유율 35%(2025년)의 선두 지위 확보

I. 기업 현황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기술로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기업

동사는 2005년 설립되어 자동심장충격기의 국산화에 성공한 응급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으로, 2025년 국내 조달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 기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2005년 8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2009년 자동심장충격기 제조품목허가 획득과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국산화 성공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2015년 조달우수제품 지정, 2019년 기술역량 우수기업(T3) 인증, 2020년 세계일류상품 인증, 2022년 삼백만불 수출탑 수상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2025년에는 베트남 시장 인증을 취득하는 등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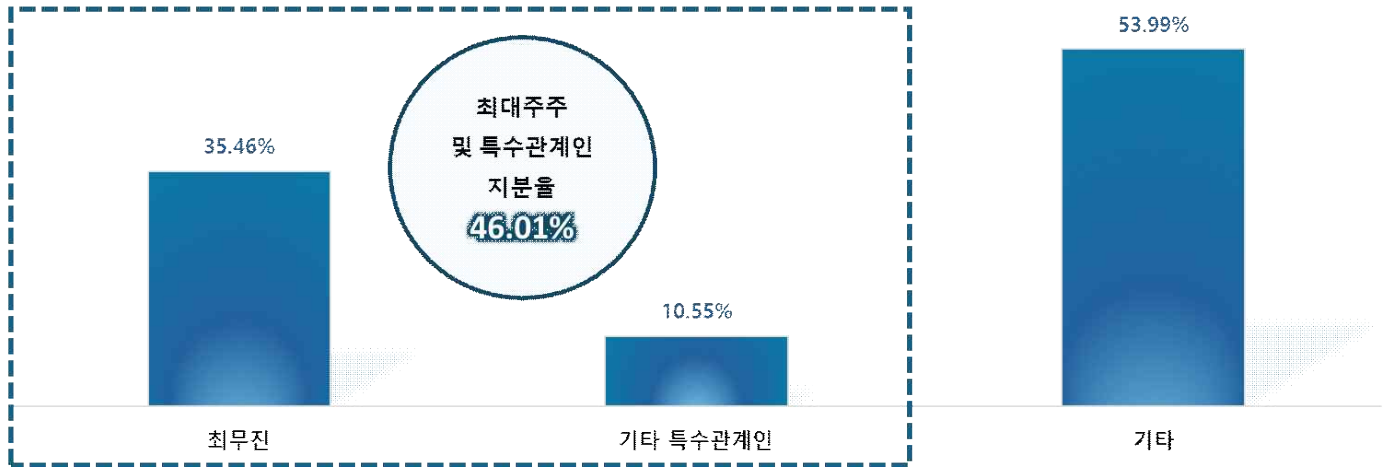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최무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무진 대표이사는 남부대학교 대체의학과를 졸업하고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하심의료기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2002년부터 (주)나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05년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약 20년간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최무진 대표이사는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자동심장충격기 국산화를 주도하였고, 국내 조달시장 선두 지위 확보와 40개국 수출망 구축, 인공지능 기반 신제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최무진 대표이사는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기술·영업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경영 역량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최무진 대표이사로 1,780,000주(지분율 35.46%)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특수관계인이 10.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6.01%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 주요주주로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주)가 7.9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경추마사지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자동심장충격기	Heartplus, ReHeart, HeartKeeper, RQ-6000, NT-5000 외	심정지 응급환자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보관함·전극패드 등 소모품의 제조·판매, 원격관리 서비스
경추마사지기	DR.CURVE	경추 근육 이완용 소형 마사지기기의 제조·판매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자동심장충격기 주요 제품



자료: 동사 홈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한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응급의료장비로, 음성안내와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3등급 의료기기이다. 동사는 Heartplus, ReHeart, HeartKeeper, RQ-6000, NT-5000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용 트레이너와 보관함, 전극패드 등 소모품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는 국가별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제품 신뢰성과 축적된 레퍼런스가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동사는 국내 최초 성인·소아 공용패드 개발을 비롯하여 진공상태 패드 모니터링, 작동온도 알림, 블랙박스 기능의 주변환경 소리 녹음,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현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시장에서 동사는 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직판, 대리점, 도소매 등 다변화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사업소와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등 권역별 지사를 통해 전국 단위의 영업·사후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선박,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018년 5월부터 미 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되어 설치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제도적 수요를 바탕으로 경로당 및 공동주택 추가 설치, 등록체육시설·구급차 의무설치, 옥외형 설치 확대, 관광지 보급 확대 등을 겨냥한 판매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조달시장 점유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내구연한 10년 초과 장비의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체 수요도 창출되고 있어 안정적인 내수 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시장에서 동사는 유럽,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 인증을 기반으로 4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파트너 특성에 따라 독점·비독점 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완제품 수출과 함께 OEM, ODM, SKD 방식의 현지생산 비즈니스 모델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시장에는 원격관리 시스템과 통신모뎀을 결합한 RQ-6000 모델을 수출하여 장비 판매와 연계된 부가 서비스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2027년까지 유예된 유럽 CE MDR 인증을 전사적으로 준비하며 선진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 경추마사지기 주요제품



자료: 동사 홈페이지

경추마사지기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판매를 개시한 신규 사업부문으로, 동사는 경추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소형 마사지기기 DR.CURVE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후두부 TP점 및 후두부에 위치한 다양한 근육의 마사지가 가능하여 전문 관리사에게 직접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과 효과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등 지역 기반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분야에서 축적한 의료기기 설계·제조 역량을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기기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단일 품목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정책 수요와 교체주기 도래로 성장 국면에 진입한 자동심장충격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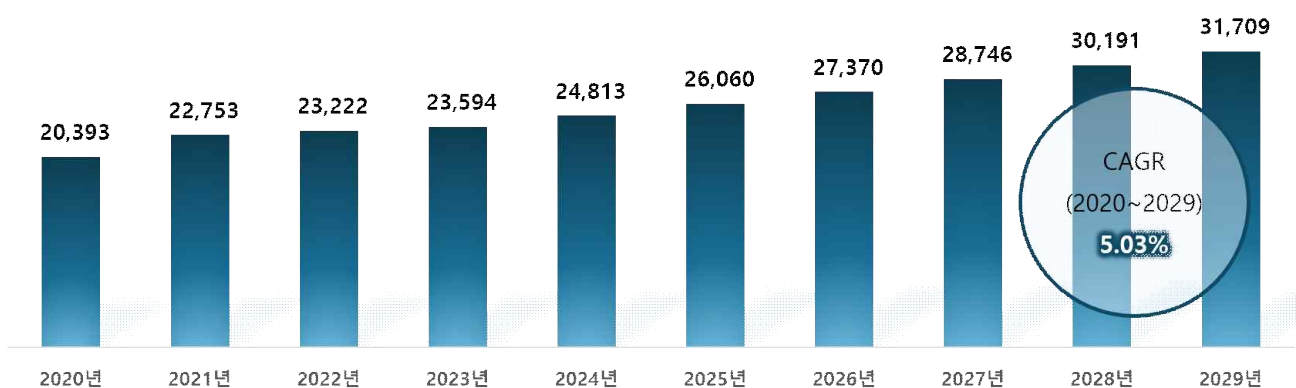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국내 시장은 2024년 24,812.93억 원 규모에서 2029년 31,709.05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설치 확대와 내구연한 규정에 따른 교체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맞물리며 동사 목표시장의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2026)에 따르면,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시장의 2020년 국내 시장 규모는 20,392.66억 원에서 연평균 5.03%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24,812.93억 원의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 목표시장의 규모는 31,709.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국내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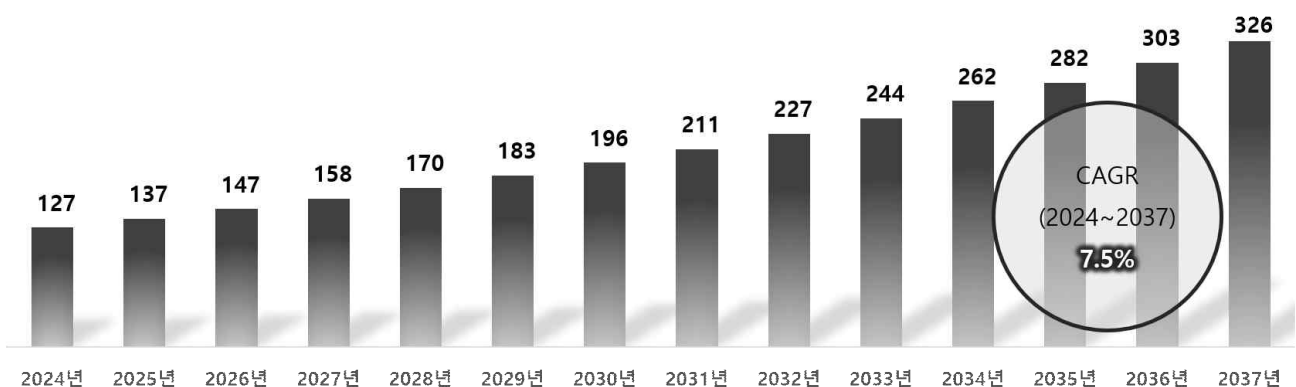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한편 동사의 주력제품이 속한 글로벌 제세동기 시장의 경우 Research Nester(2025)에 따르면 2024년 127.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5%씩 성장하여 2037년에는 32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심혈관 질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가 맞물리며 국내외 목표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글로벌 제세동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Research Nester(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시장은 정부의 응급의료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3등급 의료기기이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서 생산·유통·설치 전 과정에 걸친 이력관리가 요구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되고 미설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달 수요가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는 상반기와 결산이 이루어지는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최근에는 질병관리청 기준 연간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급성심정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산,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내구연한 10년 규정에 따른 교체수요 발생 등으로 민간부문 수요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시장은 공공 조달 중심의 구조에서 민간 수요와 교체 수요가 결합된 구조로 수요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AED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 전기충격 기능에서 나아가 실시간 심전도 분석, 원격 자가진단·상태 모니터링, 블루투스 기반 데이터 전송 등 부가 기능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옥외 환경과 극한 온도에서의 작동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내구연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격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모품 교체 주기와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솔루션이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자동심장충격기 산업은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3등급 의료기기 분야로, 국가별 인허가 취득에 길게는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제품 품질과 축적된 레퍼런스가 요구되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Stryker, ZOLL Medical, Nihon Kohden, Philips 등 선진국 대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증가에 대응한 신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동사를 비롯한 국산 제조사와 필립스코리아, 니혼고덴 등 수입 브랜드가 경쟁하는 구조로, 조달시장의 경우 동사와 라디안큐바이오, 씨유메디칼시스템, 메디아나 등 국산 제조 4사가 대부분의 수요를 분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의무설치 확대와 교체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원격관리 시스템, 옥외형 설치 대응 등 기술 차별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주)라디안큐바이오	• 자동심장충격기와 CPR 마네킹 등을 제조하고 있음.
씨유메디칼시스템	• CU-SP1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임.
(주)메디아나	• 환자감시장치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임.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AI 심전도 분석과 IoT 원격관리를 아우르는 40건의 특허 기술력

동사는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분석, 저전력 자가진단·원격관리, 고전압 제어모듈 등 자동심장충격기 전 영역에 걸친 4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공동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래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일관 수행하는 개발 역량을 축적하여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분석 기술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핵심 기술인 심전도(ECG) 분석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심전도 분석은 환자의 심장리듬을 판독하여 전기충격 필요 여부를 판정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기술로, 판정 정확도가 제품의 신뢰성을 좌우한다. 동사는 심장리듬 데이터에 대한 2단계 라벨링과 심층신경망(DNN) 기반 지도학습을 통해 충격(Shock)과 비충격(No-Shock)을 판정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심장충격기용 심전도 분석 및 적용 방법(특허 10-2417949)을 등록하였으며, 복수의 알고리즘으로 ECG 특징을 추출하여 판정 정확도를 한층 높인 복합 ECG특징 추출 방식의 심전도 분석 특허(10-2458657)도 확보하였다. 해당 기술은 전기충격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여 오작동 위험을 낮추고 제품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동 기술이 적용된 저출력 자동심장충격기 ReHeart NT-381.AI는 2025년 3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수의계약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조달시장 내 기술 우위 확보와 매출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동사는 실시간 인공지능 엔진의 후속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며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7. ReHeart NT-381.AI 및 이의 특징



☑ 쉽고 간단하게!

- 가방을 열고 전원을 켜면 음성 사용법 시작
- 패드 교체없이 하나의 패드로 성인·소아 공용으로 사용 가능

☑ 빠르고 안전하게!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

- 버튼 전원 변환 방식으로 신속한 성인·소아 전환
- 패드 교체없이 하나의 패드로 성인·소아 공용으로 사용 가능

☑ 스마트하게!

- 인공지능을 이용한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 특허 제10-2417949
- 전극패드 상태 진단: 특허 제10-1236914
- 자동제세동기의 저전력 운영 시스템: 특허 제10-1631010
- 심전도분석을 이용한 전기충격판정방법: 특허 제10-0955342

☑ 관리가 용이하게!

- 자가진단 음성 자동안내: 매일 전극패드 상태, 배터리, 장비결함 등을 자동진단 후 이상 시 음성과 LED로 자동 안내
- 주위환경 자동녹음: 매일 자가진단결과, 환자의 심전도데이터 저장
- 전면의 LED 점멸등으로 상시 장비 상태확인 (녹색점멸: 정상, 적색점멸: 이상)
- 음성안내 기능 최대 6개
 - 다국어 안내 가능
 - 고객 요청 시 언어 변경 가능
 - Global 시대에 공공장소에서 외국인 사용 가능
 - 전원 ON 후 S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 언어 순차적 변경 가능

자료: 동사 홈페이지

■ 자가진단 및 IoT 원격관리 기술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상시 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자가진단·원격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심장

나눔테크(244880)

충격기는 사용빈도는 낮으나 응급상황에서 반드시 정상 작동해야 하는 장비로, 평상시 상태관리 기술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통신모뎀의 배터리 절약을 위한 자가진단결과 전송방법(특허 10-2192662)을 통해 자가진단 결과를 저장한 후 주 단위로 전송하는 저전력 통신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배터리 교체 없이 장비 상태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 경쟁 제품 대비 관리 효율이 우수하다. 또한 자가진단 결과를 가청주파수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통신 보안을 강화한 기술(특허 10-2495508)과 전자종이(E-Paper) 표시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전력으로 장비 상태를 표시하는 저전력 자가진단 기술(특허 10-2556406)을 등록하여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리 시스템은 장비 이상과 전극패드·배터리 유효기간 도래를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며, BLE 통신을 적용한 RQ-6000 및 LTE 통신모뎀 IM-IT201과 함께 일본 시장에 수출되어 부가 서비스 매출을 창출한다. 이러한 관리 기술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지침의 강화 추세에 부합하여 공공 조달시장 내 동사의 수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8. IM-IT201 탑재 RQ-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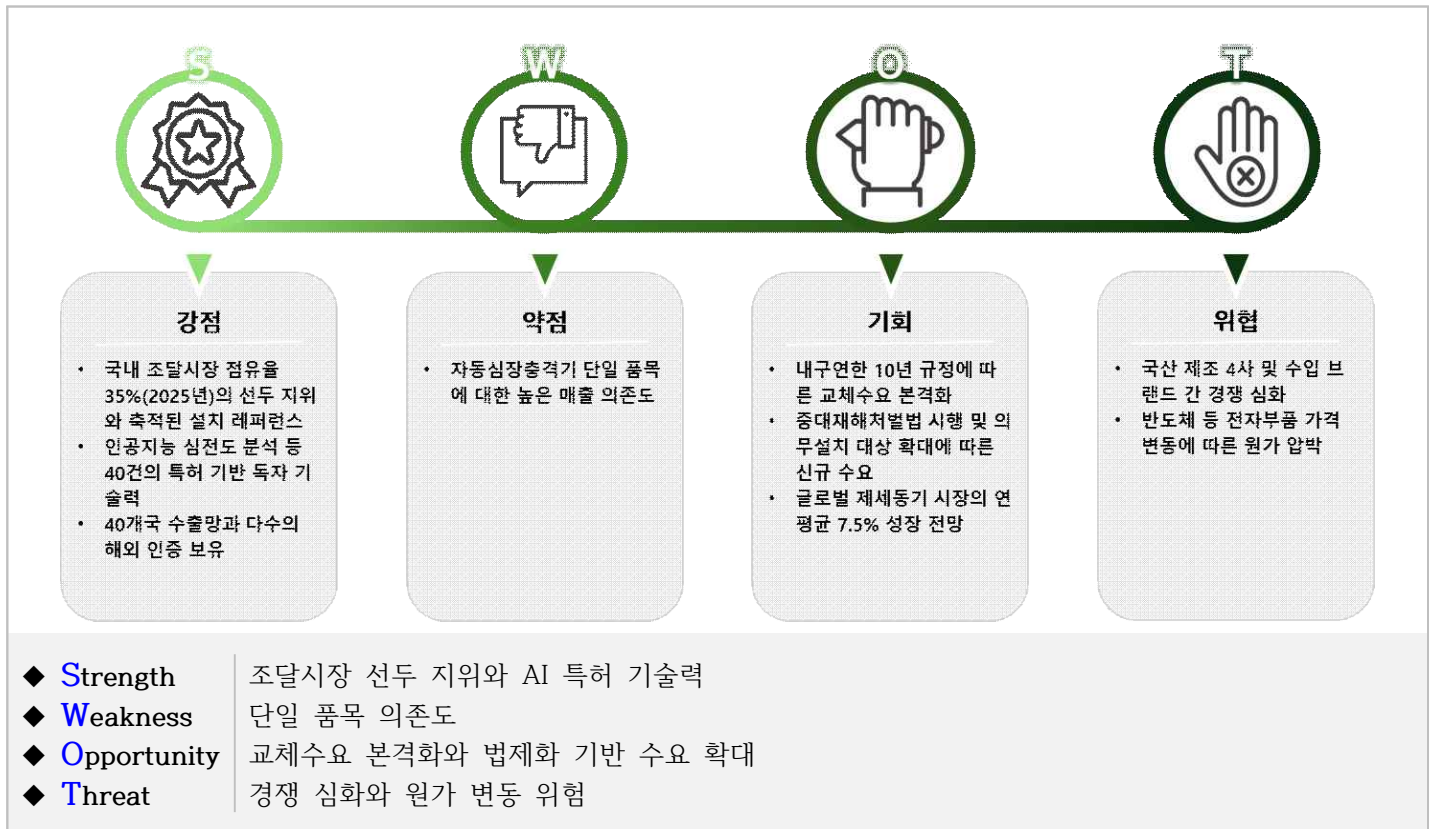


자료: 동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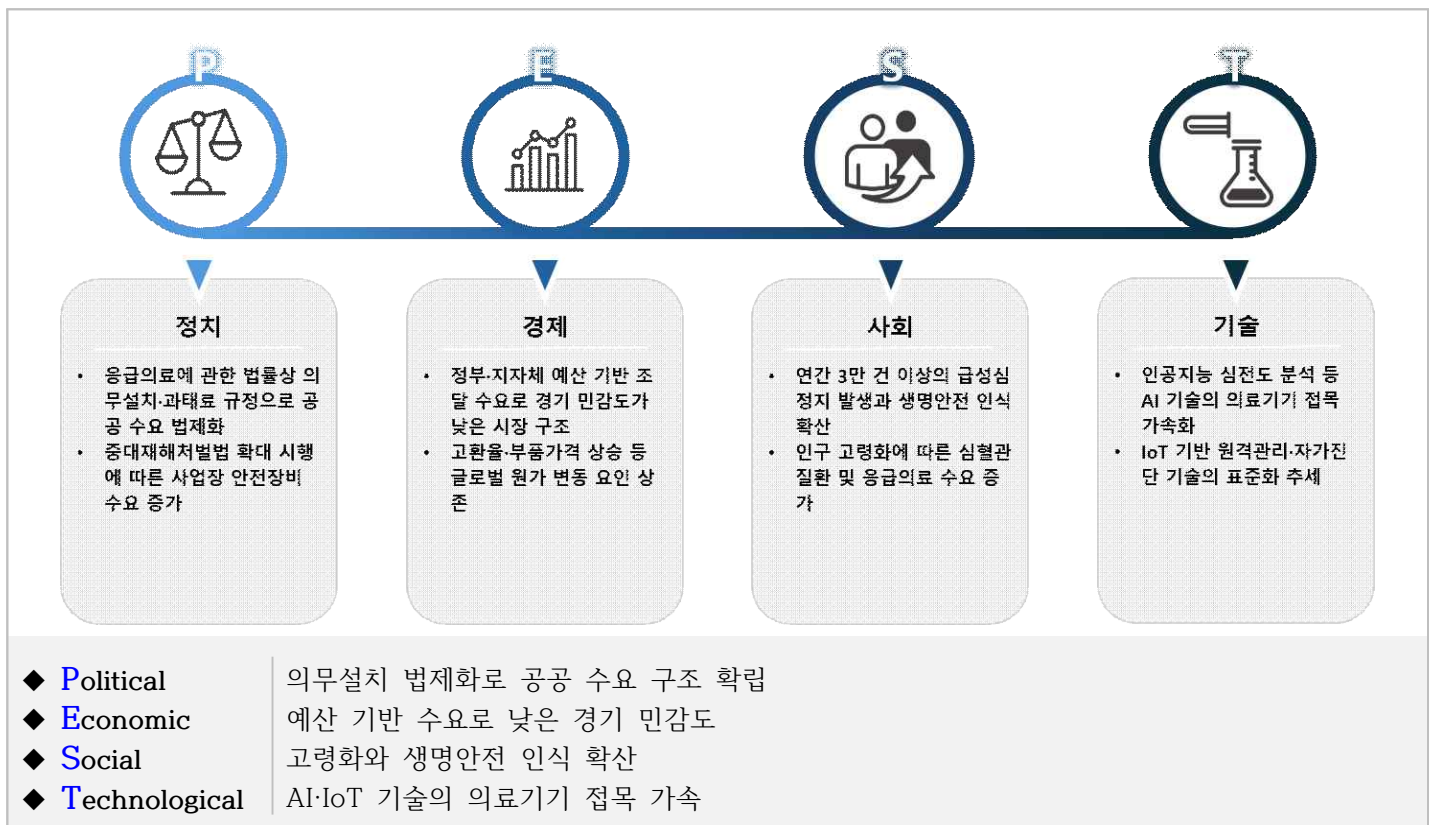
■ 고전압 제어 및 패드 점검 하드웨어 설계 기술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 하드웨어의 핵심인 고전압 에너지 제어와 전극패드 점검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개발한 제세동기 특허(10-0948671)를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하이 사이드 방식의 이상 파형(biphasic) 전기충격에너지 제어 회로와 정류회로를 내장한 고효율 FBT(Flyback Transformer)를 적용한 고전압 제어모듈(특허 10-1933809)을 개발하여 부품 수 감소를 통한 제품 소형화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임피던스 브리지와 압력 센서로 패드 젤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손상방지 패드점검 시스템(특허 10-2404108)과 환경·조건 변화에도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하여 점검 신뢰도를 높인 패드점검 구조(특허 10-2761325)를 등록하여, 응급상황에서 전극패드 불량으로 전기충격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환자가 화상을 입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하드웨어 설계 역량은 IP66 등급의 방수·방진 설계와 결합되어 기온 변화 감지센서와 향온 기능을 갖춘 옥외형 제품 등 설치환경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제품 품질과 신뢰성이 최우선되는 자동심장충격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사가 축적한 하드웨어 원천 기술은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판단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견고한 재무구조 기반 AED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수출 다변화 추진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내수 및 수출 흐름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 성장한 163.5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효율화에 따라 전년 대비 18.1% 확대된 33.4억 원(영업이익률 20.4%)을 시현하였다.

■ AED 제품매출 비중 84.8%, 자기자본비율 92.1%의 견고한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제조·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Heartplus, Heartpro, NT-5000 등 자체 개발 제품을 국내 조달·직판·대리점망과 해외 수출(수출비중 약 32%)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25년 매출 구성은 제품매출(자동심장충격기 + 경추마사지기) 84.8%, 상품매출(AED 보관함 등) 15.0%, 기타 용역매출 0.2%로 이루어져 있으며, AED 제품군이 핵심 매출원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2년 141.0억 원에서 2023년 175.7억 원(전년 대비 24.6% 성장)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2024년에는 일부 거래선 조정 영향으로 161.2억 원(전년 대비 8.2% 축소)으로 조정되었다. 2025년에는 AED 내수 및 수출 흐름에 힘입어 163.5억 원(전년 대비 1.4% 성장)으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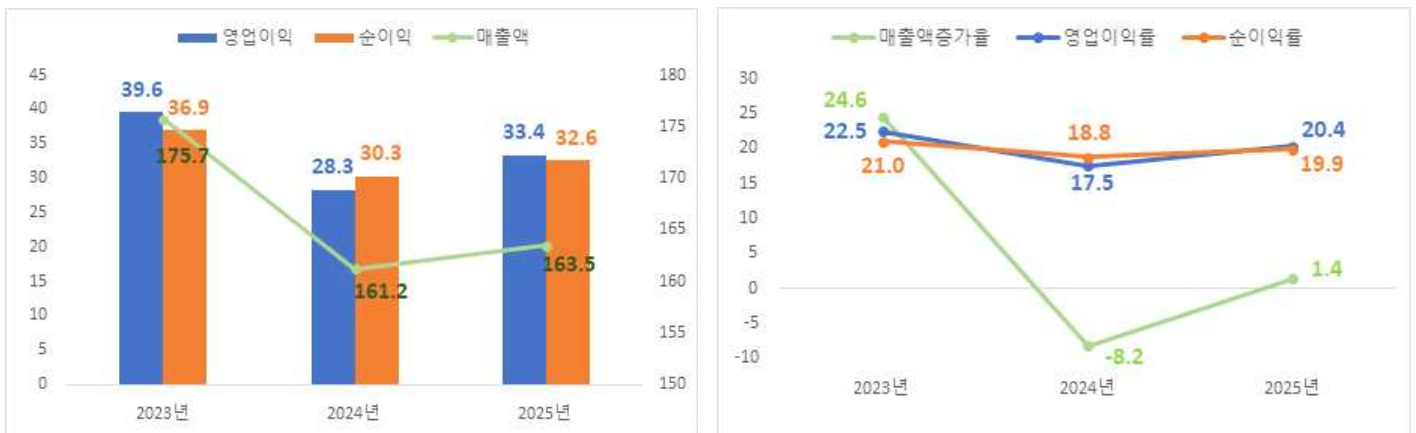
■ 영업이익 33.4억 원, 매출원가 효율화에 따른 영업이익률 20.4% 회복 시현

2024년 동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8.2% 축소된 161.2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매출 조정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이익 28.3억 원(영업이익률 17.5%)을 나타내며 전년 대비 수익성이 일부 둔화되었다. 한편 당기 순이익은 30.3억 원(순이익률 18.8%)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외 부문의 안정적 손익 기여로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5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4% 성장한 163.5억 원을 기록하고, 매출원가 효율화에 따라 영업이익이 33.4억 원(영업이익률 20.4%)으로 확대되며 전년 대비 18.1% 회복되었다. 당기순이익은 32.6억 원(순이익률 19.9%)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률·순이익률 모두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동사는 향후 해외 수출 채널 다변화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나눔테크(244880)

■ 총자산 289.3억 원, 부채비율 8.6%-자기자본비율 92.1%의 견고한 재무구조 유지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21.3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6.5억 원 감소한 19.3억 원, 자본총계는 27.8억 원 증가한 238.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51.5%p 상승한 1,162.0%, 부채비율 4.1%p 하락한 8.1%, 자기자본비율 3.4%p 상승한 92.5%).

2025년 동사는 영업 활동 호조에 따른 이익 누적으로 총자산이 전년 대비 31.3억 원 증가한 289.3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7억 원 증가한 23.0억 원, 자본총계는 27.6억 원 증가한 266.4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02.4%p 상승한 1,264.4%, 부채비율 0.6%p 상승한 8.6%, 자기자본비율 0.5%p 하락한 92.1%).

그림 10.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175.7	161.2	163.5
매출액증가율(%)	24.6	-8.2	1.4
영업이익	39.6	28.3	33.4
영업이익률(%)	22.5	17.5	20.4
순이익	36.9	30.3	32.6
순이익률(%)	21.0	18.8	19.9
부채총계	25.8	19.3	23.0
자본총계	211.0	238.8	266.4
총자산	236.8	258.1	289.3
유동비율(%)	910.5	1,162.0	1,264.4
부채비율(%)	12.2	8.1	8.6
자기자본비율(%)	89.1	92.5	92.1
영업현금흐름	36.6	22.2	41.7
투자현금흐름	-5.9	-45.5	-46.0
재무현금흐름	-2.0	-5.5	-5.0
기말 현금	44.8	16.0	6.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글로벌 자동심장충격기(AED) 시장은 공공장소 의무 설치 확대 및 응급 의료 인프라 강화 흐름에 따라 향후 연평균 4~8%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 의무 확대에 따라 기업·공공기관의 AED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사는 국산 AED 생산 거점 기업으로서 정책 환경 변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동사 주력 제품매출은 내수 안정성과 수출 확대 흐름이 병행되며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2026년 해외 수출 전략으로 10개 권역 파트너사 발굴, 완제품·SKD·OEM/ODM 수출 병행 등을 통한 수출 채널 다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CE MDR 인증 유예 일정에 맞춰 체계적 준비를 추진하며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신규 출시한 경추마사지기(DR.CURVE)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2억 원 규모 기부를 집행하며 ESG 경영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매출은 제품과 상품을 합하여 180억 원이 전망되며, 자기자본비율 92% 내외의 견고한 재무 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의 해외 수출 채널 본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본격 반영, CE MDR 인증 완료에 따른 유럽 진출 가시화 등 신규 모멘텀이 본격 반영될 경우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1.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Stacked bar chart showing sales by category (제품, 상품, 기타) from 2023 to 2026E. The Y-axis represents sales in billions of KRW, ranging from 0 to 200. The X-axis shows the years 2023, 2024, 2025, and 2026E. The legend indicates three categories: 제품 (Products), 상품 (Goods), and 기타 (Others).

연도	제품 (제품)	상품 (상품)	기타 (기타)	합계
2023	150.1	24.8	0.8	175.7
2024	138.1	22.7	0.4	161.2
2025	138.5	24.6	0.4	163.5
2026E	153.0	27.0	0.0	180.0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175.7	161.2	163.5	180.0
제품	150.1	138.1	138.5	153.0
상품	24.8	22.7	24.6	27.0
기타	0.8	0.4	0.4	0.0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AI 신제품과 교체수요를 양대 축으로 한 성장 모멘텀 확보

동사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자동심장충격기 NT-381.AI를 앞세워 조달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구연한 규정에 따른 교체수요와 중대재해처벌법 기반의 신규 수요, 40개국 수출망을 통한 해외 확대가 맞물리며 중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공지능 신제품의 조달시장 안착과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

동사가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저출력 자동심장충격기 ReHeart NT-381.AI는 2025년 3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우수제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수익계약이 가능해져 조달시장 내 판매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실제 동사는 2025년 국내 조달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점유율 34% 대비 선두 지위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동사는 심폐소생술 안내 기능이 내장된 전극패드와 국가별 다양한 언어로 사용법을 안내하는 전자잉크 화면 기반 AED를 2027년 상용화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장상황 녹음 재생 기술과 IP66 등급 방수·방진 설계가 적용된 신규 모델 NT-A350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어 신제품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T-381.AI를 선두로 하는 AI 탑재 제품군은 공공 조달의 기술 평가 기준 강화 추세에 부합하여, 향후 수주 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동시에 동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내구연한 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구조적 수요 확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이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재구매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사는 2009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하여 온 만큼, 설치 기반이 교체 수요로 전환되는 시기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어 국내 누적 설치 실적이 안정적인 교체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권고되면서 기업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경로당·공동주택·등록체육시설·의료기관 구급차 등 의무설치 대상의 확대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이내 대응을 위한 동별 추가 설치 수요와 태양열 보관함을 활용한 옥외형 설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제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반한 구조적 수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예산 기반의 공공 수요와 법정 교체 수요가 결합된 품목인 만큼,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 40개국 수출망 기반의 글로벌 사업 확대

동사의 자동심장충격기는 국내 공공·금융·교육기관과 병원 등 전국 6만 5천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4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6월 베트남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규 시장 진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적용이 유예된 유럽 CE MDR 인증을 준비해 경쟁사 대비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장성숙 단계 국가에는 SKD 수출을 통한 현지생산 모델을 제안하고, 일본 시장에는 원격관리 서비스와 통신모뎀 결합 수출을 확대하는 등 권역별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장비 판매 이후에도 전극패드·배터리 등 소모품과 원격관리 서비스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설치 기반 확대가 누적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medi로 대표되는 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응급의료기기 설치를 법률 및 정부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국가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동사의 해외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눔테크(24488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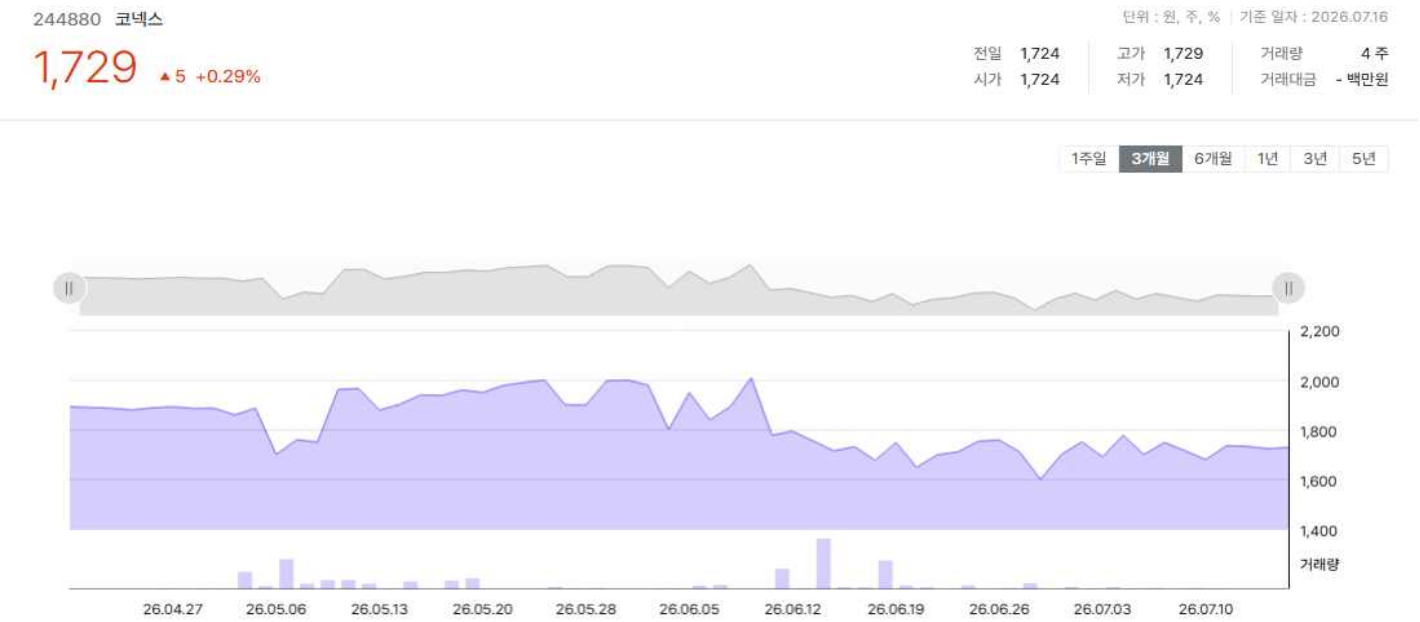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나눔테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조달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글로벌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및 응급 의료 장비의 의무 설치 기준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외연 확장과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
* 자료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7.1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나눔테크	X	X	X